

## 美 낙태반대운동가들 “5500만 위해 행진” 제각각인 ‘해외 선교사 파송 순위’ 어떻게 봐야 하나

41주년 맞은 ‘생명을 위한 행진’에 50만여명 운집



약 50만명의 지지자들이 낙태 반대 행진에 참여했다.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반낙태행진이 최근 국립몰(National Mall)에서 열렸다. 뉴저지주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은 이날 운집한 수만 명의 낙태반대 운동 지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법을 위한 세금마련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No Taxpayer Funding for Abortion Act’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곧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젊은이들은 절대 포기

하거나 지지거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의 세대에 낙태는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계기가 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낙태반대운동가들과 강연자들, 반낙태 지지자들은 매년 국립몰에 모여서 대규모의 반낙태 시위 및 행진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을 해왔으며, 이는 올해 41주년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스미스 의원뿐 아니라 버지니아주 공화당 소속 에릭 칸토(Eric Canto) 하원 원내대표, 미주리 공화당 소속 빅키 하슬

러(Vicky Hartzler) 하원의원, 워싱턴 주 민주당 소속 로저 프리먼(Roger Freeman)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지지자들은 ‘아이들은 소중한’, ‘나는 낙태에 반대하는 세대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낙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슬로건을 외치며 행진했다. 보수계 여성단체인 Concerned Women for America의 페니 영 낸스(Penny Young Nance) 회장은 “우리는 로대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된, 스스로 말할 수 없는 5500만명의 생명을 위해 행진한다. 우리는 살아 있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행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질병관리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율이 지난 20년 동안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우 낙태율은 1990년 10.6%에서 2009년 6.1%로 떨어졌으며, 미혼여성의 경우 1990년 47.7%에서 2009년 28.9%로 급감했다.

전체적인 임신률 감소와, 보수 성향이 강한 일부 주에서 낙태 규정을 강화한 법률을 잇따라 입법한 것도, 낙태율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강혜진 기자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에 비해 선교에 있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왔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교대국임을 자부해 왔다. 그런데 각 기관 자료마다 각국 선교사 파송 순위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고든콘웰대학교의 해외기독교연구원(KCI)은 2010년 기준 선교사 현황 ‘Christianity in its Global Contexts, 1970-2020 : Society, Religion and Mission’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의 해외 파송 선교사 수는 약 2만명으로 세계 6위였다. 미국이 약 12만7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1위, 브라질이 약 3만4천명으로 2위, 프랑스와 스페인이 각각 약 2만1천명으로 각각 3, 4위였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 개신교를 비롯해 성공회, 독립교회, 로마가톨릭, 동방정교회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각각 2~5위를 차지한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가톨릭이 강한 나라들이다. 브라질의 경우 1970년 후반부터 선교사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제1차 로잔대회가 일으킨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영향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강혜진 기자

기도정보(Operation World)가 발표한 2010년 세계 선교사 현황은 조금 다르다. 1위는 약 10만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중국, 2위는 약 9만3,500명을 파송한 미국, 3위는 약 8만2,950명을 파송한 인도, 4위는 약 1만9,950명을 파송한 한국이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파송수와 순위가 다른 이유는 통계 산출 방식 및 선교사 규정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발표하는 통계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는 169개국에 2만5,74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발표한 선교사 수는 1만 9,798명이었다. KWMA가 회원교단과 선교단체를 비롯해 비회원 단체의 선교사 수까지 파악해 합산한 반면, kriM은 ‘선교단체 파송’, ‘2년 이상 장기 선교사’ 등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KWMA 한정국 사무총장은 “매년 발표되는 선교사 양적 통계를 지양하고, 질적 성숙의 상호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 통계지표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KCCD-명지대, 글로벌 리더 양성에 한 뜻



사진 정중양 왼쪽이 유병진 총장, 오른쪽인 임혜빈 회장.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적 봉사단체인 KCCD(한인기독교개발협회)와 한국 명지대학교가 22일 저녁 커뮤니티 봉사와 글로벌 리더 양성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

는 오는 5월 중순 3일간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APICL(Asian Pacific Island Christian Leadership)을 함께 하며 KCCD는 명지대 국제학부 학생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영

어 훈련 및 인턴십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각종 커뮤니티 봉사, 사회 참여 및 연구 포럼 개최에도 힘을 모은다. 명지대 유병진 총장은 “우리 학교가 KCCD와 같은 사회 봉사 및 글로벌 차세대 양성 기관과 MOU를 맺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고 KCCD 임혜빈 회장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우수 대학인 명지대와 협약을 맺어 차세대 훈련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명지대에서 유병진 총장을 비롯해 김성철, 김용태, 최현선 교수와 채은정 사무장이 참석했고 KCCD에서는 임혜빈 회장, 박종대 이사장, 마리아 오기, 이숙희, 김모세, 이한나 씨가 참석했다. 김준형 기자

### 남가주목사회 사무실 오픈식 열어



남가주한인목사회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오픈하고 리본 커팅식을 하고 있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정중윤 목사)가 사무실을 오픈하고 현판식을 치렀다. 목사회 사무실은 3921 월셔 블러바드, LA 4층에 위치했다.

정중윤 목사는 “사무실을 얻어서 올해 목회자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창민 기자

**나라정비** ASE  
**유림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기독일보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성령충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나성순복음교회**  
 LAFGC LA FULL GOSPEL CHURCH

주일 대예배  
 ①부 오전 7:45 본당  
 ②부 오전 9:30 본당  
 ③부 (열린예배) 오전 11:30 본당  
 ④부 (조용기 목사 영성예배) 오후 1:30 권사회실

예배 모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 본당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영아부 예배 (0-3세) 주일 오전 9:30, 11:30 / 본당 영아부실  
 유치부 예배 (4-5세)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 11:30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 본당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토요일학교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

담임목사 :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cusa@yahoo.com

# 남가주 중부교협 30주년 기념 행사 준비모임

## 김영대 목사 “교계와 함께하는 30주년 기념대회 되게 해야”



남가주중부교협은 27일 세리토스 인근 식당에서 남가주 중부지역 30주년 기념행사 준비모임을 가졌다.

남가주 중부지역교역자협의회(회장 허귀암 목사)는 지난 27일 세리토스 인근 식당에서 남가주 중부교협 30주년 기념행사(이하 30주년행사)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중부교협 증경회장단을 비롯해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목사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들도 참석했다. 허귀암 목사는 30주년 행사를

기획한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30주년이 된 중부교협에 더 많은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교회연합회의 이름에 걸맞게 중부지역 교회에 장로들을 이사로 영입해, 보다 힘있는 연합회를 구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모임에서 결의된 사항은 30주년을 맞아 △목회자 신뢰회복 운동, 미자립교회 목회자 돕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으며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감사한인교회에서 피종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행사를 가지며 △30년간의 에피소드를 넣어 사진을 중심으로 한 30주년 기념책자 발간기로 했다. 모임에서 김영대 목사는 “교계와 함께할 수 있는 30주년 기념대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나 목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규 기자

# 기독교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및 영자신문 창간예배



기독교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및 영자신문 창간예배가 23일 오전에 JJ그랜드호텔에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기독교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및 영자신문 창간예배가 23일 오전 10시 30분 LA JJ그랜드호텔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기독교일보 후원자 및 임직원들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부 예배는 토마스 맨 국장의 사회, 민중기 목사 대표기도(충현선교회), 본지 편집고문, 백지영 목사(남가주 여성목사회장) 성경봉독, 김정선 집사 특별찬양,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본지 편집고문) 설교, 박효우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장) 축사, 정중윤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장) 축사, 김승희 목사(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장) 영상축사, 류종길 목사(미주성경대 총장) 격려사, 김혜성 목사(영생장교회, 본지 편집고문)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기독교일보 영자신문 창간식은 이인규 사장의 사회로 박희민 목사

창간선언, 김성민 목사(남가주새소망교회) 창간기도, 이은수 목사(“너는 내 아들이라” 작사작곡) 특송, 이상명 목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축사, 이진호 라디오코리아 방송본부장 및 상무이사 축사, 한국기독교 김광수 사장 영상축사,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 오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3면으로 이어짐



은혜한인교회가 피종진 목사를 초청해 23일부터 부흥성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성령님 모시고 동행하는 삶, 축복의 열쇠

2014년 새해를 맞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담임)를 초청해 23일부터 4일간 신년축복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연일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부흥성회에서 피종진 목사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며 은혜의 장소에 거할 때 모든 성도들은 영적,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며 “이민자들은 누구나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축복받은 미국 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날에는 녹 24:49-53을 본문으로 “이 성에 유하라”는 말씀을 전했다. 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머물라 하신다”며 “주님은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이 성에 머물라 하신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며 성령을 받는 삶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설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에는 출 19:16-19절을 “시내산 모세의 기도”를 통해 믿음을 지닌 삶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 전했다.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 앞에 무릎꿇는 자가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다. 시내산의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 5대 재부 카네기, 록펠러, 폴게이트, 워너 메이커, JC 페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새벽예배, 철야 기도, 구역예배, 속회예배를 드리는, 복음을 들고 산과 바다를 건너는 한국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절한 아론의 대역에 서지 말고 시내산의 모세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이라 마무리 지었다. 셋째 날에는 시편 57:7-9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말씀을 전하며 “신앙의 기초는 새벽기도이며,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시며 분을 보이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고 전했다.

주디 한 기자

# OC 교협 임원 및 연간 행사 계획 발표돼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23대 임원 명단을 확정짓고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이사장은 박용덕 목사, 총무이사는 엄영민 목사, 후원이사장은 김영수 장로다. 회장은 민경엽 목사가 지난해에 이어 유임됐으며 수석부회장은 손병렬 목사, 총무는 류경진 목사다.

2014년 1월 OC교협은 12일 미주한인연합감사예배를 드렸다. 2월 8일

에는 OC지역 기관장 초청 조찬예배를 드리며 3월 1일에는 통일기도회를 연다. 4월 20일에 OC지역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드릴 계획이며 OC교협의 정례 행사인 사모 블레싱 나잇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는 새롭게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크리스천 청소년 탤런트 콘테스트 및 공연이 있고 8월 17일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식도 연다.

김준형 기자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딩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CALIFORNIA ARTS UNIVERSITY

(School of Contemporary Music) Sevis I-20상당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 대학원(실용음악)

**CAU 인가(일반 Approved 대학교)**

BPPE(Bureau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California Education Code #: 94866 or 94890  
California School Code #: 66695760

US Federal IRS/ California State/ Fullerton City:  
Non-Profit Organizations

**한국을 비롯한 92개국 학력인정**

State of California Secretary  
Apostille processed for CAU Students

**특별 수료증과점**

음악치료사/ Music Therapist  
상담전문가/ Counselor  
찬양사역자/ Praise & Worship Leader

CAU 대학원 입학자격: 4년제 대학교 졸업자  
CAU 대학원 졸업 및 학점: 2년/ 48학점  
CAU 학위: 실용음악학 석사  
Master of Arts in Contemporary Music Performance

**CAU 전공과목**

Musical Instruments:  
Keyboard(jazz piano), Guitar, Base, Drum,  
Brass, Percussion, Strings, Woodwinds,  
Winds, Reeds, etc.  
Composition, Film and Digital Music  
Vocal  
Recording  
Music Business

**연방정부 및 주정부 학비신청 및 보조**

**CAU 자체 장학금**

음악경력장학금 / 성적장학금  
그랜트장학금 / 선교및교역자가족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 사회봉사자장학금  
장애인장학금 / 유학생장학금 / 특별장학금

**\*실용음악 교수 및 레슨 감사 초빙**

모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인자  
제출처: lovecsk@gmail.com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연세드신 분, 주부,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반 신설.  
·고졸 및 대학중퇴자를 위한 특별반 신설.

**213-700-7575, 267-251-5511(영어) / 070-7885-0289(from Korea) / e-mail: info@cau-edu.us**

Campus: 410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lifornia 92833 Website [www.cau-edu.us](http://www.cau-edu.us)

기독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및 영자신문 창간예배



행사를 마치고 순서를 맡은 남가주 교계 인사들과 기독일보 임직원들이 케익 커팅식을 하고 있다.

10주년 예배는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의 축복과 격려 속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1세뿐만 아니라 2세, 3세를 위한 신문으로 변창할 것”

기독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및 영자신문 창간예배

민중기 목사(중현선교회, 본지 편집고문)는 대표기도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주시어 이제까지 오게 됐다. 기독일보 사역자들을 통해 날마다 영향력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전파 위해 목회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감사하심을 주시길 바라며 이제 1세뿐만 아니라 2세, 3세를 위해서도 나갈 수 있는 신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본지 편집고문)는 ‘기독인론의 사명’(행 1: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고 요한복음에 감응하는 여인을 구하시며 땅에 쓰신 것이 유일하다”면서 “본문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 같이 기독인론의 사명과 책임이 크다. 누군가의 기록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세계로 전해졌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희민 목사는 기독인론의 사명 4가지에 대해 강조하면서 “첫째, 교계의 소식을 정확, 신속하게 전함으로써 크리스천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독일보는 지난 10년간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다. 둘째, 기독과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사명이 중요하다. 또 셋째, 문서선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며 넷째, 교회일치와 연합을 위한 사명이 감당해야 한다”

고 전했다. 이어 박희민 목사는 “기독일보는 이 사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교회갱신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면서 “이제 2세대와 3세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류 사회와 다른 소수민족에게도 영향력 줄 수 있는 영자신문을 시작하게 됐는데 20년, 30년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껏 실천해나가고, 살롬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효우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는 축사에서 “별써 기독일보가 10년이 됐고 지금까지 기초를 잘 닦아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제 새로운 10년은 영문판을 통해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앞장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할 줄 믿는다”고 기대했다. 정중윤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장)는 “하나님께서 기독일보를 통해서 뜻을 행하시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 앞으로도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면서 “기독일보를 통해 죽어가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복을 받아 누리며 베풀며 영광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목사(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장)는 영상 축사를 통해 “1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기독일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선도하는데 앞장섰다고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큰 일을 감당할 것을 뉴욕 500여 교회와 2천여 목회



(왼쪽부터) 민중기 · 박희민 · 박효우 · 정중윤 · 이은수 목사.

자들 대표해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류종길 목사(미주성결대 총장)는 격려사에서 “어디를 가든 연합사역이 중요하다. 기독일보는 같은 분야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상생하며 서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면서 “성령님의 본질이 격려이며 기독교는 격려하는 집단으로 성도의 분업은 격려다. 저 또한 오늘부로 기독일보를 매달 후원하며 격려할 것이다. 많은 격려자들이 잇따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기독일보 영자신문 창간식에서 이인규 사장은 “10주년을 맞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문사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이 될 것”이라면서 “이민 교회 차세대대를 발굴하고 세워주는 신문이 되고, 교회를 떠나는 2세대들이 복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신문이 되도록 하겠다. 1세의 훌륭한 신앙적 유산들이 2세, 3세대에게 잘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희민 목사는 창간 선언을 통하여 “이민 역사가 111년 됐는데 이제 영문자로 기독교신문이 발간돼서 차세대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주류

사회와 타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렇게 기독일보가 한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영문판 창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박희민 목사의 인도로 기독일보와 이민교회 2세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며 1.5세를 대표해서 김성민 목사(남가주새소망교회)가 마침기도를 했다. 김성민 목사는 “기독일보 영문판을 통해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세대들의 모든 사역들과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서 2세, 3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격려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상명 목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는 격려사를 통해 “기독일보가 10주년의 길지 않은 역사 가운데서 기독정론지로 성장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영자 신문 발행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꾸준히 해 나간다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자신문이 승승장구해 1세와 2세를 이어주는 신앙의 끈이 되고 신앙의 빛이 될 것이

다. 이민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라디오코리아 이진호 본부장은 “라디오코리아가 최근 기독교 콘텐츠를 기독일보와 손을 잡고 시작하게 됐고 동반자가 됐다. 10년이 됐다는 것은 사명감과 직업정신, 신앙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영자신문 창간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더욱 발전해 나가서 30년, 50년, 100년 이상 이어지는 사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기독일보 김광수 사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기독일보는 그동안 미주 한인사회의 가교역할이자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역량을 모으는 중심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기독일보의 노력은 기독교계의 큰 기쁨이고 자산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어, “한국기독일보는 그동안 일간신문 발행을 준비해 왔으며 다음 주부터 전자신문이 일간지로 전환될 것이다. 한국에서 꼭 필요한 신문, 불만만 신문, 권한만 신문, 기독교 대표 언론이 되고자 힘쓰고 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HEAVEN EARTH TRADING Import & Wholesale
www.uslahealth.com
(213)386-3585
SANSAM
산삼 (인디언이 캔 야생산삼) 모든 건강식품
매실/홍삼제품 한약제품
Vitamin 각종 즙
(LA 한남체내)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역도 Wilshire

# “해외 선교대학 설립, 언더우드·아펜젤러의 DNA”

## ‘PAUA 2014 국제교육선교서울대회’ 개최... 세계 각국 사역자들 모여



PAUA 2014 국제교육선교서울대회 참석자들이 기도하는 모습.

‘PAUA 2014 국제교육선교서울대회’가 ‘21세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24일(금)과 25일(토) 양일 간 연세대학교에서 열렸다.

‘PAUA’는 Pan Asia &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범아시아 아프리카 대학협의회)라는 의미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들의 연합

체로서, 현재 10개의 회원 대학과 10개의 준회원 대학으로 구성돼 있다. ‘PAUA 2014 한국대회’는 PAUA와 한국의 기독교 대학, 교회, 기독교수, 전문인(직장인),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해외 선교대학 사역에 필요한 자원(교수, 행정직원, 재정)을 연결하고자 준비한 대회다.

PAUA 강성택 사무총장은 회원 대학들을 소개하며 “해외에 세워진 기

독대학들은 하나님의 이 시대 놀라운 계획이며, 지난 30여년 간 한국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온 해외선교의 열매”라며 “선교사들이 무거운 부담 속에서도 결국 대학을 세우고 지도자를 키워 한 국가를 본질적으로 도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조신인을 사랑하여 학교를 세우고 조신인을 일깨웠던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서양 교육선교사들의 DNA를 우리가 이어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거장인 랄프 윈터 박사는 ‘한국아시아선교학회’를 조직할 때 강사로 와서, ‘미국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지난 50년 간 해외에 단 한 개의 대학도 세우지 못한 것’임을 지적했다”며 “이것은 복음 안에 제대로 선 대학교 하나가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선교대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인에게 특별히 맡기신, 독특하고도 의미 있는 사역이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을

감아야 한다”고 했다. 강 사무총장은 한국 기독교인이 대학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로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일어나 OECD 국가 중 다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어 개발도상국들의 모델이고 ▲교육 강국이 된 나라여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63%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이며 ▲호감을 주는 나라이고, 세계가 한국드라마에 빠져드는 이유는 정(情)·가족문화와 같은 동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학선교사역의 특징으로는 ▲현지 국가의 인재를 키워주는 사역으로 환영받고 있으며 ▲종족을 복음으로 ▲모든 전문직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사역으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 된다고 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연합대학교(UAUT)를 설립한 이진섭 목사는 사역 발표에서 “아프리카에서는 금, 은, 보화와 우리눔, 석유, 가스 등 자원이 나온다. 그런데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서구 열강들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착취하면서도 공장 학교를 세우지 않았다. 또 아프리카 민족은 저주론, 속명론과 패배주의에 빠져있다. 탄자니아의 무슬림 코란학교는 5살 때부터 하루 3시간씩 코란을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 역시다. 선교에는 돈이 필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이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했다.

몽골국제대학교의 권오문 총장은 감사인사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시골 어느 대학에서도 한국의 학생들이 석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들이 한국이 아닌 선교지에서 교수 사역을 할 수만 있다면 대학의 미래가 있다. 선교사로 헌신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경쟁력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전했다. 신태진 기자

# “자신의 비즈니스 탁월하게 하는 것 자체가 선교”

## BAM 국제심포지엄 강사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원론 극복’ 강조

‘BAM(Business as Mission)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했던 주요 강사들이 22일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간담회에는 게리 호그 박사(Generosity Monk 대표/큐리오스인터내셔널 미주본부 부이사장), 대럴 힐드 맥클레런 재단 전 사무총장, 정성욱 교수(큐리오스인터내셔널 대표/텔레비전학교), 데이빗 김 대표(Telosventures)가 참석했다.

다음은 간담회 질의응답 내용.

**심포지엄 내용과 그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땠나?**

게리 호그: 신앙성경에 나오는 실업자 10명의 삶을 조명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혼자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을 지원했던 40명의 선교사역자들과, 40명의 경제적·사회적 조력자들이 있었다. 더디오와 같은 출판업자를 비롯해 여러 실업자들이 바울을 도왔는데, 여기에서 참석자들이 힘과 위로를 얻었다.

대럴 힐드: 일과 신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강론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인들에게 내 사업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고

소명의 현장이기에 일과 신앙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성욱: 강연에서 강조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요점이 나눔이라는 것이다.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순종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인 본질이 교회와 직장에서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눔의 모습을 가진 교회와 개인이 되었을 때 한국교회가 갱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AM’의 개념을 소개해 달라.**

대럴 힐드: 옛날에는 직업 선교의 패러다임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선교를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비즈니스를 탁월하게 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선교다. 직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복음 전도의 문을 열고 문화를 변혁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미국 기업의 예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데이빗 김: 여러분들은 놀라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제가 있는 실리콘밸리는 단 2%만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다. 구글에는 320개의 성경공부 그룹이 있으며, 회사도 팀 켈러 목사님 등을 강사로 초

청해 강연을 들었다. 또 하나는 교회와 직장이 동일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기업은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다. 기업의 생존과 하나님의 관대함을 드러내는 것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

게리 호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목적과 사업의 목적을 바르게 정의하는 것이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면 경쟁으로 가는 회사밖에 안 된다.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이윤을 덜 보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직물장사 루디아나 출판업자 더디오의 사업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직업도 선교 활동이었다.

대럴 힐드: 두바이에서 만났던 한인 기독교 사업가의 첫 번째 사업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했다. 목적에 따라서 선택과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억만장자로서 수많은 돈을 구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신태진 기자



BAM 국제 심포지엄 강사들. (왼쪽부터) 게리 호그, 데이빗 김, 정성욱, 대럴 힐드.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EBS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는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 기독교일보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 23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 이사회  
이사장: 박용덕 총무이사:엄영민  
이 사: 박학선 신원규 양금호 양문국 윤성원 이종은 정영수 한기홍
- 후원이사회  
이사장: 김영수  
이 사: 권혁석 안윤태 이덕식 이민중 이준영 이종필 전준홍 정문수
- 회장단  
회 장: 민경엽  
부회장: 수석:손병렬 기획:송규식 대외:윤덕근 영성:이호우  
교육:민승기 신학:김기동 평신도:신복수
- 임원  
총 무: 류경진 서 기:추석근 회 계:서준석 감 사:강순희
- 분과위원장  
신 학: 오아론 이민목회: 오상철 장 학: 김도영 교 육: 이선자  
선 교: 신현철 전 도: 박재만 인 론: 이정현 음 악: 김윤식  
홍 보: 이태중 방 송: 윤우경 복 자: 노정도 친 교: 서양훈  
평신도:손찬우 여 성: 웬디유 구 제: 최정자 차세대:앤드류김,이영미  
청년선교: 더글라스김 실버사역: 주도진 의료선교: 이상화  
캠퍼스:김정숙 다문화: 태드황, John김



회장 민경엽 목사 이사장 박용덕 목사 후원이사장 김영수 장로

## 2014년 OC교협사역

- 01월 12일(주일) 미주한인의날 감사예배
- 27-29일(월-수) 영적대각성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
- 02월 08일(토) 오렌지카운티지역 기관장초청 조찬예배
- 03월 01일(토) 통일기도회
- 04월 20일(주일) OC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
- 05월 15일(목) 제3회 사모님 Blessing Night
- 07월 19-20일(토,일) 크리스천 청소년 탈렌트 콘테스트 및 공연
- 08월 17일(주일) 차세대리더 장학금수여식
- 09월 04일(목) 임원회 야외예배
- 10월 02일(목) 임원회 및 남가주기독교교회협과 친선축구대회
- 11월 13일(목) 제24차 정기총회
- 12월 사랑의쌀 나눔운동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 작은 것부터 헌신해야 큰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 어린아이일수록 큰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 장군'이라고 말하지 '병장'이 되겠다고 하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그 꿈이 점점 작아집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이 10년도 안되어 '공무원'으로 취직만 되어도 좋겠다고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 세상 눈치나 봅니다. 세계 각국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 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여기가 좋으니 하면서 주저앉아 새로운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헌신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힘입니다. 이런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미래를 '확률과 가능성'으로 준비합니다. 확률과 가능성이 좀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업을 위해 애를 쓰지만, 이런 방법은 불안감을 조금 줄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과 헌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즉 세상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창17: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뜻은 완벽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물 많은 사람이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를 학대하고 감사와 자족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헌신하

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지금 주어진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비의 양을 치는 작은 일에 헌신하였더니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불꽃을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일에 헌신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헌신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헌신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져 바다로 내려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외롭지만 처음 교회 개척을 명받았을 때, 그곳은 환경적으로는 너무 안 좋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일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아 복의 근원이 되리라 생각하고 헌신하였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얕은 계산으로 이 일을 발판삼아 더 좋은 곳으로 도약하리라는 욕심을 버리고 충성으로 헌신하니 커다란 살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확률과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충성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겠다는 사람이 인생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람!

## 매너 팡 vs 매너 짱

'매너'는 예의범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입니다. '매너'는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매너'는 동서양과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품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매너는 대단히 중요 사항으로 다뤄집니다. 외교적인 매너를 의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의전 절차만 다루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때로 의전절차가 합의되지 않아서 정상회담이 채 열리기도 전에 결렬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교적인 매너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비즈니스에서도 매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자체보다 세일즈 매너에 끌려서 제품을 구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급 레스토랑을 찾는 이유는 음식보다 오히려 음식을 서빙하는 고품격 매너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매너를 사고 파는 행위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잣대가 '매너'였습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수준 높은 나라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공식이



김 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매너'보다 보이지 않는 '파워'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파워 중 하나가 바로 '매너'입니다. 아무리 경제력을 갖추어도 국민들이 '매너'가 짱인 행동이 스스로 없이 행해지면 "이 나라는 아직 멀었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매너'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매너'를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연구해 보면 결국 '매너' 또는 '에티켓'을 다루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

지 아니하며(고린도전서 13:4, 5)." 언어의 에티켓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골로새서 4:6)."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억울하게 고발당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사람들을 향한 고품격 매너의 끈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신 예수님도 매너와 에티켓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셨습니다. 절제된 고품격 언어, 온유한 행동,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절은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쳇말로 표현하자면 '매너 짱'이었습니다.

"난 한국사람이라서 미국식 매너나 에티켓이 불편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회에 속해 있으니 한국식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매너와 에티켓에는 문화적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는 매너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매너 말입니다. 그 매너는 한국식이냐, 미국식이냐가 아닌 '천국식'이라 표현할 수 있는 매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시민입니다. 그렇기에 천국시민은 반드시 '매너 짱'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기독교일보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는'

### 남가주중부교협 한인청소년비전센터 (대표 김영길 목사, 이사장 김영대 목사)



T 714.904.6298 (사무총장 전동은 목사)  
14241 Imperial Hwy, #G La Mirada CA 90638

## 보이지 않는 발자국

지난 월요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고 이현달 목사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 고 이현달 목사님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 교회 중 하나인 상향중앙장로교회를 개척하신 이민 교회 개척자 중의 한 분이신데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의 3대 총회장을 지낸 교단의 어른이기도 하셨다. 목사님은 주로 북가주 지역에서만 오래 사역하셨기 때문에 나 개인적으로는 만나 볼 기회가 없었다.

그렇지만 발인예배의 설교를 맡은 까닭에 목사님의 생애의 발자취를 좀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 인터넷을 통해 목사님에 관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목사님의 연세가 89세이고 최근 몇 년 간은 많이 연로하셔서 거의 활동도 없으셨다고 하는데 인터넷에는 의외로 목사님의 흔적들이 적지 않았다.

인터넷의 검색기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목사님 이름 쳐서만 가지고도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정보 중에는 며칠 전 목사님이 소천하신 직후 각 언론사에서 보도한 장례식 안내로부터 목사님이 젊은 시절 출판하셨던 몇 바퀴 성경공부 책의 모습도 있었고 심지어는 거의 오류십 년 전 한



엄 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국에 게시 때 어느 노회에서 일을 할 때의 노회록까지 있었다. 일반인들이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이 정도이니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개인에 관한 별의별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생생한 흔적들을 남기고 간다. 흔적 정도가 아니라 더러는 돌아가신 분들이 산 사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한다.

자주 듣는 미국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을 틀면 얼마 전 돌아가신 척 스미스 목사가 정확히 예전의 그 시간대에 그대로 나와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어느 기관의 광고에도 등장해서 이 기관은 믿을 만한 기관이니 적

극 이용하라고 추천까지 하신다. 모르는 사람들이면 저 분이 돌아가신 분이 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재미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누가 죽은 사람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여쭙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흔적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어느 시대 보다 선명하게 남을 것이다. 예전에 천국을 갔다 왔다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전 생애가 영화의 필름처럼 보여지며 순간순간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도 컴퓨터만 돌려보면 한 사람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여질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이 한편으로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하다. 사람 앞에 애써 감추어왔던 나의 부족한 모습이 죽은 후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 것인가? 반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선을 쌓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이래저래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 세계 최초! 최대! 음이온 매트 초당 850만개 영구적 음이온 생산

## 닥터-니온스 초강력 음이온 매트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실리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99 LARGE**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음 이온 매트  
●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60 MINI**

### 숲속의 숙면

고가제품의 각종 건강 매트에서 효험을 못보신분.

Dr-NIONZ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세요.

Dr-Nionz 매트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항상 시킵니다.  
**진드기, 곰팡이, 알레르기를 제거하는 닥터 니온스의 음이온 매트로 숙면을 즐기세요!!**

무독성. 무취. 부작용 없음. 최고급 음이온 팔찌의 150배 음이온 발생  
단 한번 구입 \$60 / \$99 평생 5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 음이온 매트.

**보너스로 따라오는 효과**

1.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짐
2. 심하게 코고는 분 70~80% 감소 효과
3. 잠못자서 항상 피곤하신 분 숙면으로 단잠
4. 호흡 곤란으로 힘드신 분 편안해집니다
5. 전립선으로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확실한 효과
6. 피곤함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정신 노동 하시는 분에게 크게 도움을 줌
7. 귀취한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8. 스트레스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은** 탁한 혈액을 맑게하며 혈관과 실핏줄을 확장시킴으로써, 혈액 순환을 높여줍니다. 엔돌핀과 NK 세포를 내보내도록 도움을 주며 암 예방과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성화된 체질을 약 알칼리화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심근경색, 치매, 중풍과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 매트 사용은 자연 숲 속이나 폭포수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후기**

- Dr-Nionz 사용한 날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고 자궁수축과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사용 2개월, 여) 60대 초반 김정은
- 많은 건강 매트를 사용해 보았지만 이렇게 효능있는 확실한 제품은 처음입니다. 전립선 때문에 잠자는 동안 화장실을 다섯 여섯번씩 다녔지만 지금은 한 두번정도. 잠자리와 호흡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사용 1주일, 남) 70세 정재용
- 손자가 코를 심하게 골아 잠을 잘못 잤는데 Dr-Nionz 사용후 코를 아주 적게 골며 잠을 잘 잡니다. (사용 1주일, 여) 80세 복포 할머니
- 아내가 밤이면 네다섯번 잠 깨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젠 폭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공을 차다 허리를 약간 다쳤는데 Dr-Nionz을 사용한 다음날 바로 숙면과 함께 허리가 나아졌습니다. (사용 2달, 남) 50대 글렌델 브레드
- Dr-Nionz 사용한 날부터 심하게 골던 코가 80% 정도 감소하고 숙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David Lee
- 아내가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자주나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던 중 Dr-Nionz 매트 사용후 쥐 나는 것에서 해방되어 아주 기쁘고 보너스로 코고는 것도 많이 감소하였으며 본인은 숙면을 취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 되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고윤기
- 추천 1: 음이온**이 가장 많이 나오는 Dr-Nionz 매트로 일주일 정도 사용 하였는데 숙면도 되고 만성 피로도 점점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Dr-Nionz 추천합니다. (한의사 원장 이은희)
- 추천 2: 현대인**이엔 음이온이 부족하여 스트레스와 불안 불면 그리고 치매 중풍 뇌졸중등의 치명적인 병이 많아졌습니다. 초강력 음이온 Dr-Nionz 의 음이온 자연 자유 법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에 강력 추천합니다. (한의학 박사 원장 조재범)

그동안 수많은 음이온 제품들이 있었으나, 그 효과를 보신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의 (팔찌, 매트, 벨트, 팬티, 여성 속옷 (브라 or 코르셋) 음이온 생리대 등 음이온 발생량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 좋은 음이온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무료로 음이온 제품들을 측정해 드립니다.**

### 니온스 음이온 팔찌

업계 최고의 품질 보증!

**강력한 음이온 방출**  
최초 3D 입체형 디자인

**\$20 ONE 팔찌**   **\$22 양편 (TWO TONS) 팔찌**

**11 컬러 3 사이즈**

1. 최고 수치의 음이온 방출.
2. 입체형으로 통풍이 잘 되며 습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차별화된 디자인
3. 포장 법을 준수하여 과대 포장을 하지 않고 소비자를 위하여 가격을 확실하게 낮추었습니다.

### 카멜레온 신비의 음이온 핸들커버

강력 음이온 팔찌보다 32배 음이온 방출!

**COMFORT POWER GRIP**

**세계 최초 특허품**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 졸음 운전을 자주하시는 분
-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 분
- 손 관절로 인하여 아프신 분
- 차에 찌든, 담배 냄새 제거
- 운전중 집중력 강화

안전 운전자의 필수품!

**\$30**

# 명품 FUJITA 만의 강력한 특성!

##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역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Heating**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단 강약 조절을 선택할 수 있음!

**Zero Gravity**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후지타만의 완벽한 기능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무척 시원해요!

**전문 타이 스트레칭!**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교정에 최고!**

에어 전신 스윙 안마



환상적 어게 3 회 10초씩  
허리 3회 60초씩

**7~8 천불 상당의 타사 마사지체어와 비교 해 보세요!!**

**품질은 최고, 가격은 정직한 절반값!!** Reg. \$6,499.00

**스마트 월드** 건강용품 전문점

**로데오 갤러리아 몰안**  
대표전화: 323-454-7872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SALE \$4,200** (Tax)  
**\$175/월 2년 무이자**  
www.Gosmartworld.com

# 이란, 전국적 교회 폐쇄 조치 중... 대선 이후 박해 가중

### “정부 박해 불구하고, 더 많은 이들이 예배 참석하려 해”



오픈도어선교회는 “이러한 박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도어선교회

이란 당국이 최근 전국적인 교회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션네트워크뉴스(MNN)는 미국 오픈도어선교회 마이클 우드(Mi-

chael Wood)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란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우드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란에서 교회에 가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계속 교회에 가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집에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어떤 경우든지 주의와 감시를 받는다. 한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교회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행하신 역사를 하나하나 나눈다”고 전했다.

믿는 자들은 또한 교회 대신 집에서도 모임을 갖고 있으나, 이마저도 안전하지 않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어려움이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

고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이란 이슬람 정부의 핍박을 불러일으켰다.

우드 대표는 “크리스마스 직후, 테헤란의 거점 교회 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교인들은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페르시아어는 이란의 공식 언어이며, 이 교회 교인들의 다수는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고자 하지만, 실상은 반대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리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들은 교회의 문을 닫도록 지시했다.

이란은 현재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박해국가순위 9위에 올라 있으며, 이란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매우 심각하다.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 정부는 기독교를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무슬림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

강혜진 기자

# 제프 터니클리프 WEA 총재

## 시리아 기독교인 보호 촉구

### “제네바 II 회의에 현지 기독교 상황 반영되길 기대”



제프 터니클리프 WEA 국제 총재.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UN 제네바 II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프 터니클리프 세계복음연맹(WEA) 국제총재가 시리아의 종교적 소수인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각별히 촉구했다.

제네바 II 회의는 현지시간으로 22일과 24일 스위스 몽트뢰와 제네바에서 연달아 개최됐으며,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측 대표단과 반군측 대표단을 한 자리에 모아 내전 종식을 위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아졌다.

터니클리프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실 (이 회의는) 모든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단지 이틀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 이들이 현재의 무력 충돌을 멈추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중단하도록 함의에 도달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UN 발표에 따르면 시리아에서는 2011년 이래로 지속된 내전으로 현재까지 10만 명이 사망하고 9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터니클리프 총재는 내전으로 인한 피해에 가장 취약한 시리아 내 민족적·종교적 소수 그룹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노력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시리아 전체 인구의 8%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함을 그는 강조했다

다. 터니클리프 총재는 “우리는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을 무척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현재 시리아의 미래가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2천여 년 이상 이 나라에서 존재해 온 기독교인들의 목소리 역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시리아의 난민 캠프를 방문하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민족적·종교적 소수 그룹들의 처한 상황을 직접 전해 들었다.

“시리아에 차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와 상관 없이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소수 그룹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터니클리프 총재는 지난 주 미국 회의원들과도 면담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시리아 기독교인들과 소수 그룹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제네바 II 회의에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 역시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세계 교인들이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기도라고 생각한다.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시리아에서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그는 요청했다.

한편, WEA는 지난 20일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제네바 II 회의측에 전달한 교회의 시리아 평화 노력 촉구 성명서에 지지를 표명할 바 있다. 손현정 기자

# 메릴랜드에서 애완견과 함께 드리는 예배 논란

메릴랜드 스미스버그의 시온연합감리교회(Mt. Zion United Methodist Church)는 1월 26일부터 매달 마지막 주일을 ‘개와 함께 하는 예배’로 드릴 예정이다.

이는 애완견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예배자들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예배 장소에 개를 데리고 오는 이 일은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CBS 발티모어와 가진 인터뷰에서 알 딜(AI Deal) 목사는 “애완동물, 특히 애완견을 집에 두고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자신의 애완동물과 함께 따뜻하게 환영과 위로를 받는 장소를 제공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배는 위스콘신 연합감리교 소속 목회자인 앤 불리스(Ann Bullis) 목사에 의해 처음 제시됐다. 그녀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속한 교구 주민들에게 개를 교회에 데리고 오도록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동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딜 목사는 “목회에서 성공하길 원

한다면, 더욱 많은 교회들이 애완견과 주인 간의 관계에 대해 알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 사회는 애완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에게 맹인견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들은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돕고,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 수 년 동안 개들은 우리 군인들을 보호하기도 했다. 심지어 애완견 묘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 초기 이민자 봉사센터

## 미국 생활에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한미 법률센터(초기 이민자 봉사센터)에서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 세무사, 유학 전문가가 교민들을 위해 횡수에 제한없이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이용바랍니다.

- 유학생(ESL 포함)전학 및 체류신분 변경
- 유학생의 학교생활 고민 상담(어려운점 및 문제점)
- 영주권 신청, F-1(학생), E-2(소액투자), R-1(종교)및 종교이민
- 아파트 분쟁
- 소액재판
- 민사소송
- 이혼
- 법인 설립
- 재정 보증

이민국 서류 거절시 수수료 전액을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TAX & Accounting (세금 절약 방법 안내)

# www.migukguide.com

migukguide@gmail.com

# 문의: 213)272-7498

## 130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15 (Olympic + Union에서 동쪽으로 4블럭)

# 빌리 그래함 목사 건강 쇠약, 기도 요청

##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아버지 좀 더 살 수 있기를 바래”



빌리 그래함 목사.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투병 중인 아버지 빌리 그래함 목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돌아가실 날이 언제 오든지, 아버지는 천국에 가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지난 19일 WB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자신의 95회 생일을 보낸 빌리 그래함 목사가 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기력이 매우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아버지는 천국에 가실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의 아버지는 전 생애에 걸쳐 열심히 일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지만, 주님께서 아버지가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또한 “아버지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나 힘이 없으실 뿐이다. 아버지는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고마워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빌리 그래함 목사가 약한 기력 때문에 대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

는 내가 방에 있다는 걸 알고 나를 인식하신다. 내게 몇 마디 건네시지만 대화를 하실 수는 없다.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대화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하면서 “그는 위대한 아버지이자 친구였다. 매주일 아버지와 점심을 함께했다. 아버지가 더 오랜 기간 있어주길 원하는 개인적인 이유들이 더 있다”며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몇 달을 더 계실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기력을 얻으실 수도 있다. 이것이 나의 기도제목이다. 다시 건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다. 여전히 아버지가 하셔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빌리 그래함 목사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12월 15일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BGEA) 마크 드모세(Mark DeMoses) 대변인은 “사람들은 빌리 그래함 목사의 건강에 대해 다른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그의 건강에는 큰 변화가 없다. 모든 이들이 선한 의도로 말했다고 생각한다. 가족들은 그래함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나는 이를 이해한다”고 전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 세계 최초의 캐거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 의약품 등록 번호(NDC No: 58912-2001)

## 기적의 약(Miracle Pharmacy)

# 미라팜-22

**시판개시!**

# Mirapharm-22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 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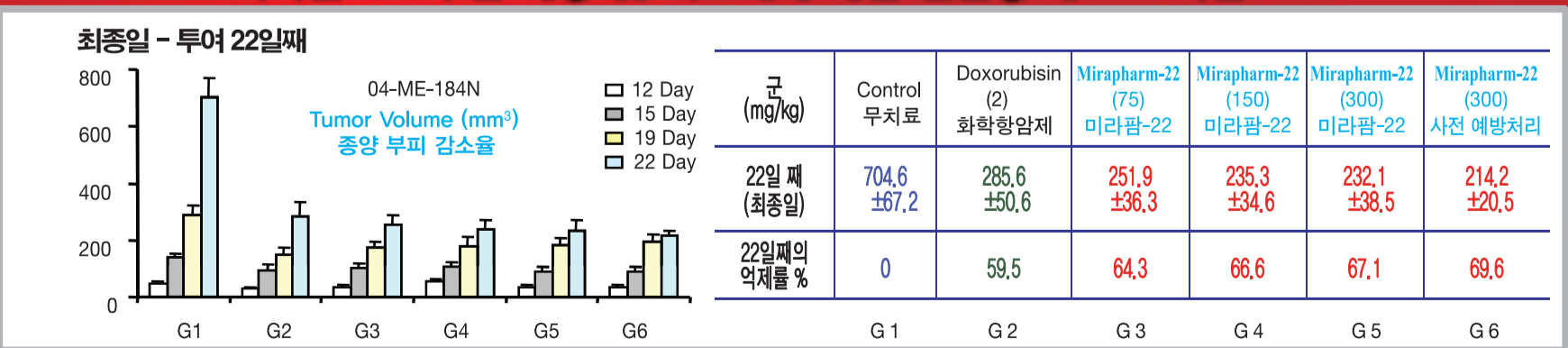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종교인 과세, ‘입법’ 말고 ‘자발’ 로... 싱크탱크 조직할 것”

## 정교분리 시국대책위, 현안 문제 교단장 초청 간담회 진행

‘한국교회 현안 문제에 대한 교단장 초청 간담회’가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 상임대표 권태진 목사, 이하 시국대책위) 주최로 23일 아침 서울 코리야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해 말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며 조직된 시국대책위는, 이날 각 교단 총회장 및 총무 등을 초청해 종교인 과세 문제를 비롯해 차별금지법·종교평화법 등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종교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이 내린 결론은 △종교인 과세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능하면 법제화 대신 종교인 스스로 납세하는 방향으로 정치권과 타협안을 마련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일종의 ‘싱크탱크’(think tank)를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세우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윤희구 목사(고신 증경총회장)는 “현재 국민들의 정서는 목사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 되면 결국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 등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교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의에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목사는 “만약 (정치권과) 타협할 수 있다면, 교계 지도자들이 자진 납세라는 뜻을 모아 이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과보고한 박종인 목사(사국대책위 사무총장) 역시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합의해 사례금의 일부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등, 지금까지 기독교가 했던 대사회적 섬김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취지 설명에 나선 장현일 장로(전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오랜 기간 국가조찬기도회를 섬기며 느낀 것은 특히 기독교가 각종 사안들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범기독교적으로 ‘싱크탱크’를 만들어, 정부 등 정치권과 사전에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일래 목사(기성 총회장)도 “각 교단들이 힘을 합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



간담회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며 종교인 과세 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했다.

이어 시국대책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성직자에 대한 과세는 국가권력이 종교행위를 침해할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일부법률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종교간 평화를 앞세워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가장 소중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려는 수단

으로 ‘종교평화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를 결사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예배는 신신목 목사(시국대책위 대표회장)의 인도, 최병두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의 기도, 김희신 목사(피어선 총회장)의 성경봉독, 김진호 목

사(전 기감 감독회장)의 설교, 임준택(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윤희구(고신 증경총회장)·조일래(기성 총회장) 목사의 특별기도, 김동권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후 간담회 사회는 권태진 목사(시국대책위 상임대표)가 맡았고, 이주형 목사(예장합신 총회장)가 기도했다. 김동엽 목사(예장통합 총회장)는 조찬기도자로 나섰다.

김진영 기자

# “다문화 가정에 위로와 기쁨, 모국의 교육을 접할 기회”

## CTS기독교TV, ‘다문화 OTT 방송’ 시작 ... 현지 방송 연결 등 획기적 서비스 제공



‘다문화 방송’ 개국 기념행사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이주민 140만명을 넘어서며 다문화 시대에 진입한 이 때, 외국인 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 방송’이 개국돼 화제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가 설립한 IT 전문기업 지로드코리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 과 다문화 가정 이 나라별로 고국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N스크린 다문화 OTT 방송(이하

OTT 방송)’이라는 획기적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OTT 방송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OTT 방송’은 인도, 태국, 필리핀, 몽골 등 각국에서 송출된 방송을 동시에 한국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셋톱박스를 설치한 TV나 N스크린으로 인증받은 스마트폰·스마

트패드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또 방송은 일반 TV를 스마트 TV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이나 안드로이드 앱 설치 및 실행, USB를 통한 개인 콘텐츠 시청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지로드코리아는 현재 모회사인 CTS기독교TV와 함께 국제방송센터 설립도 계획 중에 있다. 지로드코리아는 첫 다문화 OTT 방송으로 베트남의 썬짜오 TV 서비스를 개시했다. 베트남 현지 방송 21개 채널을 실시간 방송하며, 쇼, 오락, 교육, 여행 등 2,000여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10,000여 곡의 베트남 노래 가라오케 기능으로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지로드코리아는 올해 3월 인도, 5월 태국, 7월 필리핀, 9월 몽골의 방송 서비스를 차례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개국축하행사에서 CTS 감경철 회장은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에 위로와 기쁨을 주고, 고향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고, 다문화

자녀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말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다문화 OTT 방송이다. 오늘 출범하는 다문화 OTT 방송은 CTS기독교TV의 설립 목적과 지로드의 IT 방송 기술을 융합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백승국 이사는 서비스 소개에서 “한국에는 150만이 넘는 이주민과 28만의 결혼이민자들이 살고 있다. 다문화 OTT 방송은 현지의 교육, 오락 등 콘텐츠와 라이브로 고국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어머니 나라의 말과 문화를 접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되며, 우리 사회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축하인사는 이경재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원내대표(민주당), 김명규 회장(국가조찬기도회), THAI HUNG PHAM 회장(VTV케이블)이 했고, 격려사는 NGUYEN MANH

DONG 부대사(주한베트남)과 유해근 대표(나섬공동체)가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CTS가 종교방송에서 전 세계 방송을 품는 원스톱 방송사로 성장했다. 머지않아 세계를 하나로 품는 방송사로 출발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방송이 아닌 새로운 미디어 그룹이 탄생한 것이다. 방송 규제가 많지만 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편의로 이어진다면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바로 창조발전”이라고 했다.

THAI HUNG PHAM 회장은 “고국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이주 여성들에게 고향의 소식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베트남어를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에게 문화를 알려 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양국 간 이해와 문화 교류 과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신태진 기자

# 온 돌 마 루

##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 획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 북한 정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강도 더 높일 것

# “한국교회의 선교적 활동, 이론적 뒷받침 필요”

### 서울USA 에릭 폴리 대표, 北 당국 단속 예고에 우려 표명

### NCKK 교육훈련원, 에큐메니칼 목회자인문학 전국모임 개최



가장 심각한 기독교 박해 국가인 북한에서 지하교인들이 기도드리는 모습.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의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북한 기독교 사역 지원 단체 서울USA의 에릭 폴리(Eric Foley) 대표는 북한 보안 당국이 최근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활동 역시 더 큰 탄압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폴리 대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4대 금지 활동으로 감정에 대한 모독, 마약 유통과 복음, 불법 영상물 접촉과 공급, 미신적 행동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

했다. 폴리 대표는 “이 같은 지침은 실상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북한 당국이 금한 네 가지 활동은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는 신앙적 활동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폴리 대표는 말했다.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가장 큰 정권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이 발각될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폴리 대표는 현재 북한에는 10만

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그 중 3분의 1이 노동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나머지 3분의 2에 이르는 사람들은 겨우 당국의 조사를 피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며, 이 중 일부는 아마도 높은 지위로 인해서 보호 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나 폴리 대표는 “최근 김정은 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처형된 것처럼 북한에서는 높은 직위가 안전을 보장 해주지 않으며 누구든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의 한 기독교인에게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때 그 교인의 반응이 자신을 놀라게 했으며 한 일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 교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은 신앙의 도전들이 돈과 자유, 정치로 해결된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라고 답했다.

폴리 대표는 “북한의 교인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교인들의 기도 요청은 그들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고 전했다. 손현정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 영주 목사, 이하 NCKK) 교육훈련원 2014년(제5회) 에큐메니칼 목회자인문학 전국모임 ‘한국교회의 새로운 지평을 위한 인문학적 세상읽기’가 27일 오후 서울 연세로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모임은 1부 개회식, 2부 특별강연, 3부 발제와 나눔, 4부 마무리와 저녁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3부는 배영호 목사(인천중앙교회) 사회로 한국일 교수(장신대)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지평-에큐메니칼 교회’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 지역교회의 특징은 ‘지역사회에 전도는 하지만 관심은 없다’는 한 마디에 잘 함축돼 있다”며 “지역 속의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위 표현이 담고 있는 현재 한국교회의 특징들에 대한 반성과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역교회 차원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현주소를 잘 이해하고 장점을 유지하면서 신학적·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학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며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선교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교교회주의를 극복한 연합과 세계교회들과 함께 오늘의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교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는 구심적 차원만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실현하는 원심적 차원도 갖고 있는데, 바람직한 교회는 이 두 차원을 그 실천에서 균형 있게 나타내야 한다”며 “에큐메니칼 선교활동은 전통적 의미의 선포(Proclamation)와 함께 현존(Presence)의 형태로 구분하고, 선교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실천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선교는 선포라는 전통적 선교 현존의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 김진영 기자

리거나 대적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며 “지역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고(요 3:16), 예수님이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한 선교 현장”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에 속한 지역교회였지만, 의식에 있어서는 지역교회보다는 개교회 의식을 갖고 활동해 왔다는 것. 신앙은 교회생활로 동일시하고, 교인들은 교인끼리의 닫힌 교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역주민들에게서 교회가 신뢰를 상실하고 교회만을 위한 교회로 존재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그는 분석했다.

대안으로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 선교이며, 선교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의 본질적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선교적 교회론’을 제시했다. 지역사회를 선교현장으로, 지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선교관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 그는 “한국교회는 모든 지역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고 활동해 왔다는 강점이 있다”며 “이제 이러한 현상을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와 세상의 대립 구조’에서도 탈피할 것을 권고했다. 한 교수는 “교회는 도피처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말로 행위로 증거하도록 먼저 부름받은 증인 공동체”라며 “한국교회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목해야 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말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 자신이 곧 메시지가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일 교수는 “지역교회는 함께하는 선교적 목회를 실현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신학의 기초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교회들의 연합운동을 통한 공동의 증인과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협력하여 대응해 가는 사회적 증인이 그대로 지역교회들을 통해 실천되는 모습들을 놓여준 지역 교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앞으로는 지역교회의 다양하고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지역의 에큐메니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또 지역교회들이 선교적 교회에 충실할 수 있는 신학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진영 기자

## 이란에 구금중인 아베디니 목사, 건강 상태 심각

기독교 선교활동을 이유로 이란에 수감된 미국계 이란인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해 수술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아베디니 목사는 13년 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이후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여성과 결혼했다. 그는 이란과 미국을 오가며 자선 사역을 해 오던 작년 1월 기독교 선교활동으로 이란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란 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아베디니 목사는 투옥 후 감옥 내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이슬람교로의 재개종을 요구하는 고문, 독방 감금 등으로 인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왔다.

그의 석방과 미국으로의 송환을 위해 구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법과정의센터(ACLU)와 아내 나그메 아베디니는 최근 성명을 내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감옥에 작년 11월부터 수감되어 있으며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아베디니 목사가 살인범들을 포함한 강력범죄자들을 수감해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 ©미국법과정의센터 제공

놓은 방에서 정치범 수용실로 옮겨졌다는 발표 뒤에 나왔다. 성명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이는 그의 수감 이후 이뤄진 최초의 긍정적인 변화이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의 석방과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재회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또한 “그가 비록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갔다고는 해도 건강 문제는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으며 현재 계속되는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CLU와 나그메는 아베디니 목사

의 석방을 위한 전 세계적인 구명 운동을 펼쳐 왔다. 현재까지 66,000여 명이 온라인 탄원서에 서명했으며 202,321명이 하산 로우하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역시 이란에 아베디니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으며, 빌리 그래함과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도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란은 이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손현정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라,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편집국장 : 토마스 탕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서울 약사실험 연구개발 **독점 공급**

**세종 송보감**  
SEJONG SONGBOGAM

서울대병원 임상으로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 및 효능 인정  
KFDA(한국식품 의약품 안전청) 공식인정제품

- 서울대병원에서 혈당조절 콜레스테롤조절 효능 인정
- KFDA(한국식약청)가 공식인정한 제품
- [세종송보감]은 일반슬임제품과는 다릅니다.
- 혈관청소기능을 3~4일후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퍼스트레이디**

“갱년기여성, 생리활성”  
“불가리아 장미오일 캡슐”

**高麗 발효삼**

“항암 효과, 기력양상, 원기회복”  
“고려대학교, 엑츠 생명연구 개발”

**세종 효로정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텍**  
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

<서승원 특별 기고>

#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오해들(14)

### 3.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관계

#### 4) 헬레니즘의 보편성

이런 다양성과 더불어 이 시대 전체의 특색 중의 하나는 보편주의(universalism)와 특수주의(particularism)가 공존하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특색은 Hellenism과 마찬가지로 Judaism 속에도 나타난다. 여기서 보편주의는 진보주의 그리고 특수주의는 보수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주의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Judaism에 비해 보편주의 적인 색채가 강한 Hellenism을 수용한 결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자기들의 종교 또는 신앙이 단순히 유대인들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필론이나 조셉푸스에게서 잘 엿볼 수 있다. 폴 라마르슈(Paul Lamarche)라는 불란서 학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한 세례요한의 말을 구속의 보편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동의하던 안 하던 간에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러 오시고 또 제자들에게

대한 마지막 분부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 4. 맺는 말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희랍을 정복했으나 문화적으로는 희랍이 로마를 정복했다”고 흔히 말해진다. 로마인 자신들도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버질(Virgilius, Vergil)과 함께 로마문학의 황금기(Golden Age: 80 BC-14 AD)를 대표하는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laccus; Horace, 65-8)는 “정복당한 희랍은 난폭한 승리자를 정복하여 존스런 로마에 예술을 가져왔다(Graecia capta ferum victorem cepit et artes intulit agresti Latio).”라고 말했으며, 그 다음 Silver Age(14-138 AD)의 대표적 작가 겸 철학자인 세네카(Lucius Anneus Seneca BC 4- AD 65)는 “우리는 희랍인들 앞에 서면 작아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세기 초까지 희랍인들은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경탄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희랍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으로 접어들면서 희랍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루어지면서 차츰 그들도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룩한 위대한 문화에 대한 감탄의 감정은 크게 약화되지 않았다.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그래서 영국의 서정시인 셸리(Shelley, 1792-1822)는 “우리는 모두 희랍인들이다...만일 희랍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야만이고 우상숭배자들일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셸리의 이 말은 기독교인들 특히 동양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일론 남독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근대의 독일의 철학자가인 첼러는 희랍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희랍인들 이상으로 자기들의 천성과 제도를 윤리와 관습에 대해서 편견 없이 판단한 민족은 없었다. 다른 어떤 민족도 희랍인들만큼 자기들 주위의 세계와 우주의 깊은 곳들을 뚜렷하게 응시하지 못하였다.”

희랍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존경과 감탄의 감정은 반드시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일신사상과 신앙 그리고 높은 도덕적 생활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희랍인

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God-fearers)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은 시기와 박해의 대상이 되었는데, 잘 알려진 예를 고대와 근대에서 하나씩만 든다면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필론시대에 로마총독 플라쿠스(Flaccus) 치하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박해와 약탈을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된 대학살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이 히틀러의 학살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유대주의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 히틀러의 대학살 이전까지는 유럽인들의 유대인들과 유다이즘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이전의 유대교는 생동감 있고 생산적이었음에 반하여 그 이후는 무기력하고 비생산적인 종교로 전락했으며, 랍비들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그 형식에 집착하여 세부적인 것이나 따지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하였다.

1947년에 이루어진 쿨란문서의 발굴 이래로 유다이즘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종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유다이즘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와 더불어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는 성경이 보여주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자체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였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신학자들과 유대인학자들 간에 대화와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간에 오랫동안 쌓여온 편견과 오해가 상당히 줄어들고 상호이해가 크게 증진되었다. 그러나 헬레니즘과는 달리 유다이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 기간이 짧아 아직도 초기단계에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아는 것에 비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아직은 유다이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유다이즘에 대한 헬레니즘의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초기단계임을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오래 전부터 필자는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의 초일류강대국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과 세계선교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어 세계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신학계가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가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뜻에서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특징과 이들이 기독교 및 서구사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가까운 장래에 보다 자세하게 고찰할 기회를 가질 생각이다. <끝>

##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30)

###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30회)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Yes, I want to buy some books.  
네, 몇 권의 책을 사기 원합니다.  
What do you need?  
무엇을 원하시나요?  
I need a history book and an English book.  
나는 역사책과 영어책을 원합니다.  
What level of your class are you in?  
당신은 몇 학년인가요?  
I am in the 10th grade.  
나는 10학년입니다.  
Here is a good selection of the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ABSW)

books.  
여기에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Please enjoy your shopping.

즐거운 쇼핑이 되시기 바랍니다.  
Thanks again.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30회)

God loved the people of this world very much, and He gave His only Son. Everyone who has faith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and never really die.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people. God sent him to save the people.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외아들을 주셨다. 그분을 믿

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 English High Level (고급영어 30회)

Samuel Wesley studies at Exeter College and Oxford University. Susannah was an exceptional woman of faith in Christ. John and Charles left for Georgian in the United States as missionaries. There, John Wesley met Peter Bohler, a Moravian minister. He stressed the truth of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Wesley also preached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사무엘 웨슬레는 엑서터대학교 옥스포드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수잔나는 그리스도 향한 믿음을 가진 특별한 여인이었다. 요한과 찰스는 선교사로서 미국의 조지아 주로 떠났다. 거기에서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아의 목사인 피터 볼러를 만났다. 그는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다는 진리를 주장하였다. 웨슬레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다고 설교하였다.

<계속>

##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

# 2014년 목사고시 공고

2014년 목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셔서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총회의 시행세칙 제 2장 2조 및 제 4장 12조 2항 참조)

- 본 총회가 인정하는 기독교 개혁파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한자로 M. Div 또는 동등한 학위 소지자
- 만27세 이상 무음 입교 인으로 5년 이상이며 전도사 2년 이상의 목회 경력 소유자.
- 덜전 3:1-7과 4:12에 충족되어진 자.

### 제출 서류 (총회 시행세칙 제 2장 6조 1항 참고)

- 고시원서 (소장양식)
- 이력서 (학력 경력 상세히 기록)
- M. Div 학위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달임목사 및 교수 추천서 각각 1통(소장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사진포함 공증 필)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인 응시자도 필히 제출)
- 반영합판 사진 2매 (원서에 부착)
- 제출과목 출력물 각2부 및 CD 1장 (논문, 주해, 설교, 목회 계획서 추후 공고)
- 고시료 \$500 (수표인 경우 Pay to the Order Of "KEPCA" )
- 제출 : 고시부 서기 서준은 목사 sjw0675@hanmail.net 818-515-5731

### 고시일정 및 장소

- 일시 : 2014년 4월 21일 (월) 오전 10:00
- 장소 : C. C. U  
520.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 고시과목

- 성경
  - 조직신학
  - 교회사
  - 장로교 헌법
  - 주해
  - 설교
- 1) 주해 : 구약 - 창1:24-31 산약 - 요1:1-14절 (A4용지 5-10매)  
2) 설교 : 본문 답후3:1-12 (A4용지 5-10매)  
5. 기타 문의  
고시부장 : 신원규 목사 (stephen0613@hanmail.net, 714-336-9899)  
고시부서기: 서준은 목사 (sjw0675@hanmail.net 818-515-5731)

- 총회장: 심태섭 목사
- 고시부장: 신원규 목사
- 고시부서기: 서준은 목사
- 고시위원: 김재연 목사(한국감리대 총장), 지용덕 목사(미주양곡교회 담임), 정요한 목사(미주베델교회담임), 김병용 목사(성서장로교회 담임)



##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520.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예수**  
박태식 | 들녘 | 408쪽

부제가 '넘치는 매력의 사나이'로, '이 시대에 맞게 새로 쓰는 예수 이야기'를 표방한다. 성공회 사제인 저자는 최근의 '역사적 예수'까지 종합한 예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세상과 예수, 교회와 세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여기에 일상의 단상들을 신앙적 고민으로 승화시키는 솜씨까지 발휘한다.



**탕자의 선물**  
김치진 | 바다니 | 255쪽

이 책은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놀다 깨어지고 실패하고 밀바닥까지 내려갔던 저자가, 자살 직전에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자기처럼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전해주는 이야기. 교도관으로 20년간 근무하던 저자는 예수님께 돌아온 후 직업에 사명감을 갖게된다.



**365 말씀의 향기**  
박광철 | 문예춘추 | 404쪽

서울신대와 풀러 신대원을 거쳐 미국 LA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다 지금은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저자는 두 아들 내외를 위해 아침마다 짧은 묵상의 글을 작성했는데, 지금 이 글은 전세계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읽고 있다. 묵회와 생활, 시사에서 느낀 점들을 성경의 관점으로 담담하지만 간절하게 들려준다.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  
성제환 | 문학동네 | 3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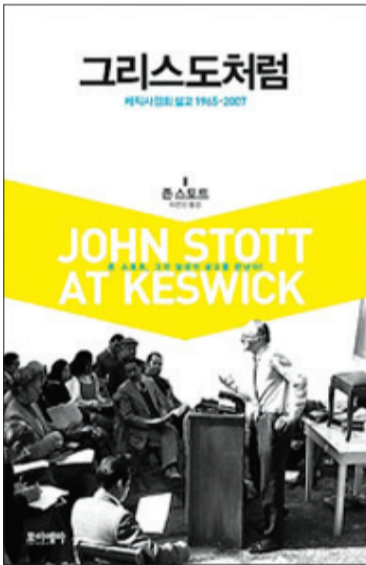
이탈리아에는 수많은 성화와 성경을 소재로 한 조각 작품들이 존재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이 작품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저자는 작가들을 후원한 피렌체 상인 메디치 가문을 단순한 '후원자'로서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대접하면서, 재능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작품을 의뢰하는 등의 비화를 전하고 있다.



### REVIEW

##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존 스토틀의 케직사경회 설교 모은 「그리스도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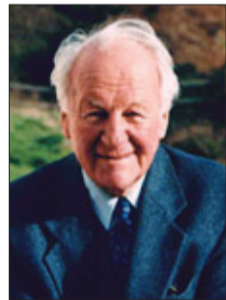


그리스도처럼  
존 스토틀 | 포이에마 | 672쪽

〈그리스도처럼〉은 故 존 스토틀(John Stott) 목사가 '케직사경회(Keswick Convention)'에서 했던 강해 설교 9편과 2007년 86세의 나이로 했던 고별 설교를 담은 모음집이다. 케직사경회는 1875년 성공회 목사 배터스비(T. D. Harford-Battersby)가 영국 중부 한 작은 마을 케직(Keswick)의 한 전막에서 시작한 집회로, 지금도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매년 여름 1만여명이 참석하고 있는 유서 깊은 부흥운동이다. 그 동안 핸들리 모울(Handley Moule)과 에반 홉킨스(Evan Henry Hopkins)가 거쳐갔으며, 미국 복음주의자 무디(D. L. Moody)와 토레이(R. A. Torrey), 피어슨(A. T. Pierson)도 영향을 받았고, 무디의 부흥운동이나

우리나라의 평양대부흥운동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추천사를 쓴 김지철 목사(소망교회)는 “무엇보다 케직사경회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성경과 헌신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 삶의 변화, 복음전도와 선교, 제자도, 연합과 일치 등 다섯 가지 목표를 천명하고 지금도 초교파적인 말씀축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책에서는 '케직사경회' 주 감사 중 한 명이었던 존 스토틀가 신앙성경을 본문으로 40여 년에 걸쳐 했던 설교들을 소개하고 있다. 1965년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롬 5-8장)'에서부터 1969년 '위기시 하나님의 복음(딤후 1-4

장)'과 '그리스도의 쉬운 명에(마 11:28-30)', 1972년의 '그리스도가 그리스신 그리스도인의 초상(마 5-7장)', 그리고 '신자 안에 계신 성령(엡 1:3)', 1975년 '하나님의 새 사회(엡 1-6장)', 1978년 '복음과 교회(살전 1-5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롬 14장)', 2000년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부르심(고전 1-4장)' 등이다. 2007년의 고별 설교는 책 제목과 비슷한 '더 그리스도처럼'이다. 존 스토틀



존 스토틀 목사.

트는 이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부르심'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신앙성경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제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성육신과 섬김, 사랑과 선교 등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일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책을 읽으면서 존 스토틀의 가장 오래 전 설교와 최근 설교를 비교해 보는 일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대웅 기자

###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http://www.sejongbiotech.us)

###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미주복음방송국2층)

##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배뺄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영선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기독교 고전 다시 읽기

# 고난을 통해 빛은 영롱한 영혼의 진주 천로역정(Pilgrim Progress)

## 성경으로부터 탄생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천로역정: 고난을 통해 빛은 영롱한 영혼의 진주 | 존 버니언

조개가 일부러 진주를 품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연찮게 굴러 들어온 작은 모래 한 알이 진주를 만든다. 인고의 세월이 흐른 뒤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가 탄생한다. 상처와 허물로 인해 아픔을 당하지만 그 상처에서 영혼의 향수가 뿜어 나온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상처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간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은 생명과 은혜를 발견하고 아픔을 승화하기에 이른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책이다.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Pilgrim Progress)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며, 수십 억 사람들이 소유하고 사랑하는 책이다. 출간된 지 벌써 400년 가까이 되었다.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절판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재출간되고 있으며,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새롭게 출간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가장 많은 출판사에서 번역했다고 한다. 심지어 천로역정이 성경보다 더 빨리 번역되어 출판된 나라도 적지 않다.

천로역정이 그토록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천로역정을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대작이 되게 한 것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선입관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작가와 천로역정을 생각해 보기로 했다.

존 버니언의 아버지는 국교도인으로 직업은 뿔장이었다. 후에 버니언도 그 직업을 물려받는다. 그래서 종종 버니언은 '뿔장이 버니언'으로 불렸다. 집안 형편상 학교에 보낼 사정이 되지 못했지만, 버니언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싶어 초등학교 수준의 읽고 쓰기를 배우는 문법학교를 보낸다. 존 버니언이 학교에서 배운 전부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그 자신도, 버니언이 역사에 길이 남을 작가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1642년 일어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한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버니언은 동료들의 죽음을 보고 죽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20세가 되던 해 마거릿 벤틀리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 그녀는 신실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여인으로, 성실하고 독실한 청교도 가정에서 자라났다. 아내의 권유로 청교도 신앙을 갖게 된 버니언은 1635년 베드포드침례교회의 신자가 된다. 메리 역시 어릴 적 부모를 여윈 고아로 자라나 혼수를 갖고 오지 못했다.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처럼 물려준 아더 텐트의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좁은 길>과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훈련>이란 두 권의 책을 가져 온다. 버니언은 아내의 책 혼수품을 읽으면서 신앙에 눈을 뜨게 뜨고 구도자의 길을 간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신앙의 책들은, 버니언을 더욱 낙담케 하고 세속적 충동에 휘말리게 하는 이유가 된다. 정황을 살펴보면 금욕적이고 세속을 정죄하는 듯한 책의 내용이 율법의 정죄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 듯하다. 선악과를 금지한 법 때문에 더욱 탐심이 일어나 듯, 금욕을 강조하는 책이 더욱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간 것 같다. 다행이 버니언은 성경을 다시 읽게 되면서,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하지만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얻는다. 이러한 영적 순례와 갈등은 더욱 깊은 신앙으로 성숙하게 했고, 유능한 작가와 설교자로 다듬어 갔다.

버니언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우울증 증상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상력과 직관력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첫번째 작품인 <우두머리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고백하듯, "주님의 노여움을 살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 어릴 적에도 무서운 꿈을 꾸고 무시무시한 광경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간과(看過)할 영적 통찰들을 루터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러한 영적 고뇌와 상상은 결국 그의 저술 활동과 설교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밑거름이 된다. 영국 내전은 시민전쟁(English Civil War)으로 알려져 있으며 1642-1651년 사이에 일어났다. 근대를 알리는 이 전쟁은 청교도 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영국 황실을 옹호하는 귀족 중심의 왕당파와 시민 중심의 의회파 간의 내전이다. 삼차에 일어난 내전은 결국 비국교 중심의 의회파가 승리하는 것으로 십년 동안의 전쟁은 막을 내린다. 이후 찰스 1세는 처형되고, 찰스 2세는 추방되었으며, 의회파는 영국 연방을 구성하여 올리버 크롬웰을 호국경으로 선출하기에 이른다. 영국 내전은 근대를 알리는 신화탄이었으며, 왕이 아닌 시민 다스리는 시민들의 국가를 만들려는 이상에서 출발했다.

불행히도 영국 연방은 순탄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의 바람을 거세게 맞은 영국은 국교회와 비국교회로 종교는 양분되어 있었고, 비국교회 안에도 가장 거대한 장로교회를 비롯하여 침례교회와 다른 많은 분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물러섬 없이 주장했다. 이러한 분파주의가 크롬웰의 정치 안에 요동치고 있었다. 의회파는 온건파와 극단적 분리파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가져왔다. 전쟁 4년 후 올리버 크롬웰은 1653년 호국경에 올랐지만 의회와 마찰이 심해져 같은 해 의회를 해산하기에 이른다. 5년 후인 1658년 크롬웰이 사망하자 결국 내분된 의회는 안정을 위해 왕정복고(1660)를 단행하기에 이른다. 스스로 패망을 선언한 셈이다.

1660년 5월 29일 런던에 입성한 찰스 2세는 영국 황제에 오른다. 아버지인 찰스 1세의 처형에 서명한 생존한 13명의 판사들을 처형하고, 올리버 크롬웰의 무덤을 파 참수하는 '부관참시'를 저지르는 등 보복정치를 실시한다. 찰스 2세의 탄압이 시작되면서 버니언의 설교도 탄압의 대상이 된다. 설교를 그만두라는 명령에 불복하자, 그는 즉시 체포되어 '비밀집회 금지령 위반죄'로 베드포드셔 감옥에 수감된다. 그는 설교를 그만 두겠다고 하면 곧바로 석방시켜 주겠다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

했다. 결국 그를 아끼던 판사조차 어쩔 수 없이 재판에 회부하여 종신형을 언도하고 12년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수감 생활은 버니언에게 큰 아픔과 고난의 시기였다.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거지처럼 살아야 했다. 이러한 심정을 담은 것은 그의 첫 번째 책인 <우두머리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1666년)>이다.

셋째 아이를 낳고 첫 부인이 죽게 되자, 버니언은 두 번째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맞이한다. 그녀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버니언이 박해를 받을 때 그의 곁에서 지지했고, 석방해 달라는 탄원까지 했다. 마침내 1672년 버니언은 석방되어 베드포드셔의 설교자로 부름을 받는다. 비록 5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1667년 체포된다. 비록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는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러한 고통과 역경은 마침내 그의 불후의 명작인 <천로역정>을 낳은 산파 역할을 한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천로역정은 1차 수감 때 이미 저술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출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 2차 수감 때 비로소 다듬고 수정하여 출간하게 된다. 천로역정 1부는 1678년에 출판했고, 2부를 첨부하여 1684년 합부로 출판하기에 이른다.

신앙양심을 부인할 수 없어 감옥에 들어간 버니언의 고통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족을 향한 걱정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독서광이었던 버니언은 감옥에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한다. 어떤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성향으로 추측해 본다면

적어도 100독 이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경이 유일한 안식처였고, 위로였고, 소망이었던 셈이다.

감옥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버니언은 하나님께 투정하듯 기도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왜 감옥에 갇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느낀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다. '몸은 갇혀 있지만 글은 쓸 수 있지 않느냐.' '몸은 갇혔으나 말씀을 갇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어릴 적 아버지가 보내준 문법학교 덕택으로 그는 미천한 신분임에도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버니언은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죽기 전까지 무려 6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그가 감옥에 갇치지 않았다면, 결코 천로역정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버니언은 감옥에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고통의 결과 위대한 영적인 서적이 탄생한 것이다.

상처는 아프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처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셨다. 아프다고 도망가지 말자. 아픔을 품에 안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비로소 영롱한 영적인 보석이 탄생하는 법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정현욱 목사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로고스서원 연구원, 부산극동방송 <책과 음악의 행복한 만남> 진행, 부산반석교회 부목사



**WCIU**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죽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질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체중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췌장에 인슐린 분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당뇨 개선제 입니다

**신제품 소비자 공급가 \$76**  
\*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621 S. Virgil st. Suit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페인팅 (PAINTING)

##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치우차우만두

T.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된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영증반응의 조율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새해맞이 고객 대세일



위산과다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사랑 감사 대세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적의 암치료제 미라팜-22를 출시하면서 HQ구연산 고객님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모든 고객님들께 사상 최저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Sea of Cortez 소금은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소금이며  
 천연 미네랄 함량이 전체 무게의 17%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암염보다 10배 이상,  
 기타 소금보다 5-20배이상 함유된 세계 최고의 무공해 천연 바다 염전 소금입니다.



**HQ구연산은  
시중에는 없으므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타사 100% 구연산 캡슐제품은  
인체 장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므로  
FDA 위법 제조로써  
고발 대상입니다**

##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10병

**프로모션 A**

**\$360 \$100** No tax

오리지널 10병 +  
미네랄 소금 2봉지(2LB)

**프로모션 B**

**\$360 \$100** No tax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8병

**프로모션 C**

**\$36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피로의 근원

##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닌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 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물질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제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안, 차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뛰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눈노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던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긴편을 다 물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피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은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용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8th St.  
Western Ave.  
로데오 갤러리아  
로데오 갤러리아  
(로데오갤러리아 아주관광 물내)

# HQ Health, Inc. / HQ 산삼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기독일보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JEONG & LIKENS, L.C.

www.jeonglikens.com

# Practicing Excellence with Winning Strategy

1. 다수의 대형 로펌 상대 소송 승소
2. 미주류 대형기업을 상대로한 다수의 승소 경험
  - 1)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 성공적 방어
  - 2)대형 언론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성공적 방어
  - 3)미 대형 군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 4)대형 부동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 5)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설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6)10년이 지난 전문가 업무상 과실 사건, 공소시효문제 해결하여 승소
3. 수임거부된 소송,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불리한 소송 이례적 승소로 해결
4. 지적 재산권, 부동산 채권추심, 건설, 노동법 등 관련 다수의 상법 소송 승소
5. 한인의류협회 및 다수의 기업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 정찬용

Loyola Law School, J.D.  
 Senior Articles Editor,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Published an article on Antitrust Law,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Won 2006 Annual Writing Competitio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 Management



### 상법/민사

COPYRIGHT, TRADEMARK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  
 각종 비즈니스 계약 위반  
 비즈니스 간 물품/서비스 거래 관련 계약  
 건설계약  
 채권/채무  
 Professional Malpractice 소송  
 프랜 차이즈, 증권, 공정거래법 관련

### 부동산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 투자
- 부동산 매매 계약
- 부동산 사기 소송
- 부동산 Lease

### 엔터테인먼트

영화 · 음악 · 공연 · 방송  
 출판 · 분야의 계약  
 미국 공연 관련 계약  
 Copyright 수익금 분배 소송

### 형사

- 음주운전 (D.U.I)
- 강도, 절도, 성범죄
- 상표도용, 신분 도용
- 불법 무기소지
- 가정폭력
- 청소년 범죄

### 이민

- 영주권 / 시민권 신청
- 투자이민 (E1/E2/EB-5)
- 추방원인자 (O-1)
- 취업비자 (대졸 H-1-B)
- 망명, 추방 등 이민 소송
- 예술비자 (O-1, P1)
- 거절된 비자 재심 청구 / 항소
-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영주권신청
- 국제입양



JEONG & LIKENS는 상법, 민사,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형사, 이민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1055 W. 7th Street, Suite 2280, Los Angeles, CA 90017  
 Tel: 213-688-2001